‘터져라’ 불방망이…‘줄여라’ 매직넘버

KIA, LG-한화-키움과 홈 6연전

최근 10경기에서 4할대 방망이를 휘두르며 팀 선두 질주를 견인하고 있는 김선빈, 나성범, 김도영, 박찬호(왼쪽부터) 〈KIA 타이거즈 제공〉

‘Again 2017’

2024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2일 현재 KIA(75승 49패 2무)는 2위 삼성에 6.5게임 앞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주 4승1패의 호성적으로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 ‘12’를 만든 KIA는 이번주 홈에서 잔여경기 6연전을 치른다.

모두 안방에서 경기를 갖게 돼 매직넘버 줄이기에 유리한 일정이다.

먼저 3일에는 3위 LG, 4-5일은 6위 한화, 6-8일 최하위 키움과 맞대결을 펼친다.

시즌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세 팀 모두 나름 갈길이 바쁘다.

LG는 2위 탈환을 위해 마지막 추격전에 나서고, 한화는 6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5위 쟁탈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키움도 2년 연속 꼴찌 수모를 막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KIA는 세 팀을 상대로 모두 올 시즌 맞대결에서 압도하고 있다. LG와 한화전은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IA가 시즌 상대전적 우위를 이미 확정지은 상태다.

주말에 맞붙을 키움과는 올 시즌 잔여경기가 5게임으로 가장 많다.

KIA는 네일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선발 마운드 공백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정규리그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이젠 한국시리즈를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우승 청부사’에 걸맞는 활약으로 기대됐던 라우어는 최근 2연속 패전을 맛보며 아직 확실한 1선발급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 대체 외국인 투수 스타우트도 지난 1일 삼성과의 KBO리그 데뷔전에서 4이닝 5실점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KIA 마운드는 라우어와 스타우트의 활약 여부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라우어는 이번주 한화전에 선발로 등판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불안한 마운드와 달리 KIA 방망이는 그나마 활화산처럼 다시 터지고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지난달 3할대를 밑돌며 다소 주춤하던 KIA 타선은 최근 10경기에서 0.350의 타율을 보이며, 마운드의 약점을 메웠다. 이 기간 동안 3할대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총 8명으로 김선빈과 나성범, 김도영, 박찬호는 4할대 이상을 때렸다.

여기에 베테랑 최형우가 확실한 ‘해결사’의 귀환을 알리면서 타선의 화력을 더했다.

막강 화력을 보유한 KIA는 현재 팀타율 3할로 리그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에이스’ 네일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KIA에 반드시 한국시리즈에 직행해야 한다는 선명한 목표 의식을 심어준 상황이다.

이번주 KIA는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참이다. 남은 18경기에서 12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 삼성이 져도 KIA의 매직넘버는 1개씩 줄어든다.

/주홍철 기자

라우어·스타우트 ‘아직은’…‘선택과 집중’ 전략 승부수
3할 팀타율 믿고 남은 18경기서 12승, 자력으로 KS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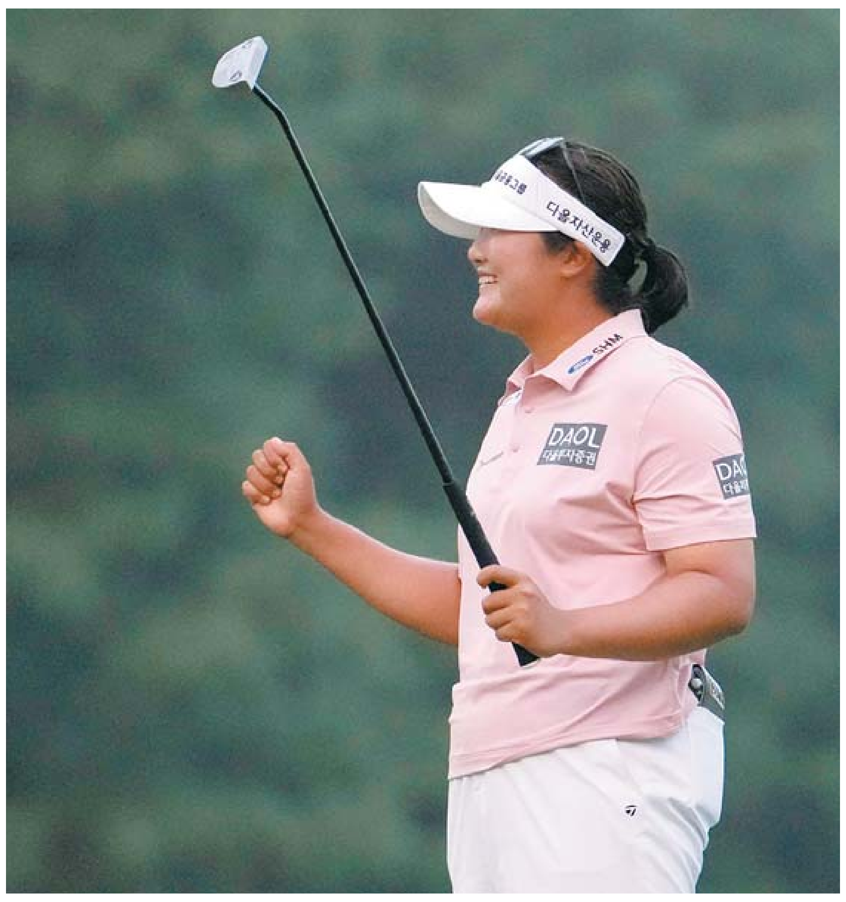
●프로야구 팀별 순위 (2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75	49	2	0.605	0
2	삼성	69	56	2	0.552	6.5
3	LG	65	57	2	0.533	9
4	두산	64	63	2	0.504	12.5
5	kt	62	63	2	0.496	13.5
6	한화	57	63	2	0.475	16
7	롯데	56	62	3	0.475	16
8	SSG	59	66	1	0.472	16.5
9	NC	55	65	2	0.458	18
10	키움	53	71	0	0.427	22

“오늘만큼은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다”

7월에 연이어 기회 날렸던 유해란, 마침내 ‘LPGA 2승’

“내 경기에만 집중…한 번 더 우승할 수 있기를”



유소연이 2일 열린 LPGA 투어 FM 챔피언십 마지막 날 고진영과의 1차 연장전에서 챔피언 퍼트를 성공 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1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한 유해란은 올해 여러 차례 우승 기회를 놓쳤던 점을 곱씹으며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유해란은 2일 열린 FM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뒤 기자회견에서 “올해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놓치면서 두 번째 우승까지 무척 어려웠다. 오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4라운드까지 15언더파 273타를 적어낸 유해란은 고진영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파를 지켜내 보기에 그친 고진영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10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 이은 유해란의 LPGA 투어 두 번째 우승이었다.

LPGA 투어에 데뷔한 지난 시즌 우승을 거두는 등 안착하며 신인상을 거머쥐었던 유해란은 이번 시즌 더 나은 경기력을 뽐내고도 이 대회 전까진 트로피에 닿지 못했다.

올해 앞서 톱10에만 8차례 들었던 그는 7월 데이나 오픈과 CPKC 여자오픈에서는 고비에서 실수가 나오며 돌아서기도 했다.

유해란은 “캐나다 대회(CPKC 여자오픈) 이후엔 정말 화가 났다. 언론 인터뷰도 하고 싶지 않았을 정도였다”면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열심히 훈련한 뒤 돌아왔고, 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2라운드 무려 10언더파를 몰아치며 6타 차 선두로 나섰다가 3라운드에서 6타를 잃어 공동 6위로 미끄러지는 굴곡이 있었다. 하지만 유해란은 이날 마지막 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며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 이번엔 이겨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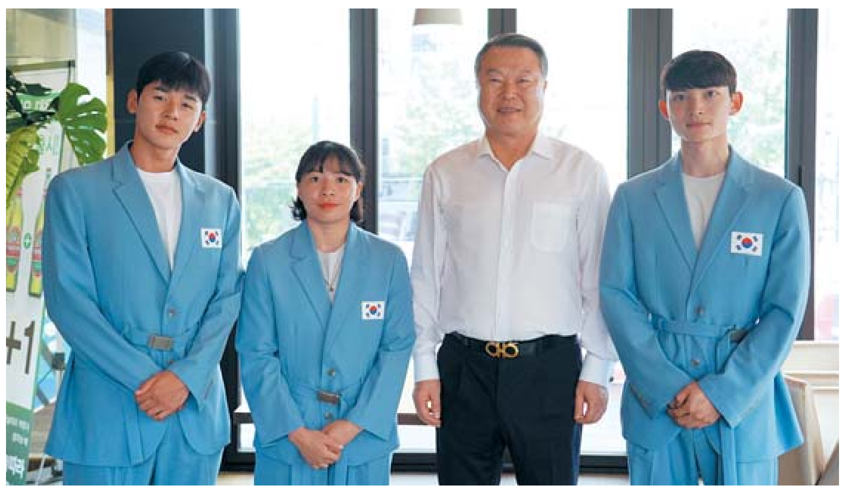
유해란은 “어제 경기 이후 정말 힘들고 화가 났지만, 캐디와 팀원들이 내일은 다 잘될 거라고, 너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해줬다. 라운드를 마치고 샷과 퍼트를 연습하며 회복했다”면서 “오늘은 시작부터 좋았고,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기뻐했다.

이어 “연장전에서 무척 긴장했는데, 진영 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상대 플레이는 보지 않고 내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유해란은 “요즘 샷이 나쁘지 않고, 퍼트도 그렇다. 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작년보다 나아졌다”면서 “한 번 더 우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파리올림픽 태극전사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2일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이혜경(유도), 전웅태(근대5종), 신은철(스포츠클라이밍) 선수와 소속팀 지도자를 초청해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파리올림픽에서 빛고을 투혼을 발휘한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전갑수 회장은 2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이혜경(유도), 전웅태(근대5종), 신은철(스포츠클라이밍)과 소속팀 지도자를 초청해 격려했다.

여자 유도 -48㎏급 이혜경(광주교통공사)은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4-3으로 이기며 광주선수단 중 첫 번째 메달을 안겨줬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광주시청)는 6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더 쉴)은 8강에서 아쉽게 졌다.

전갑수 회장은 “한 사람의 도전이지만 그 도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녹아 있으며,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은 값지고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출전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투혼을 발휘해 광주의 명예를 드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4년 뒤엔 진짜 에이스로”

패럴림픽 첫 출전 배드민턴 유수영 ‘단식 4강·복식 2위’

유수영이 지난 1일(현지시간) 열린 배드민턴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패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장애인 배드민턴의 에이스 유수영(21·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은 1일(현지시간)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남자 단식(스포츠등급 WH2) 준결승에서 찬호유엔(홍콩)에게 세트스코어 0-2(21-23 10-21)로 패한 뒤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유수영은 마음을 다스리고 몇 시간 뒤에 정재군(47·울산중구청)과 함께 남자복식(스포츠등급 WH1, 2) 결승전에 출전했다.

남자복식 결승에서도 중국의 마이젠펑-취쯔모 조에 세트 점수 0-2(10-21 12-21)로 패했지만, 복식 결승이 끝난 뒤에는 울지 않았다.

유수영은 “단식 준결승이 끝난 뒤에는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좀 울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유수영은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복식 경기가 끝난 뒤 유수영은 “지금 당장은 조금 분하기는 하다. 하지만 일단 내일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은메달 수확을 기뻐할 것 같다”고 했다.

유수영은 2일 김정준(46·대구도시개발공사)과 단식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파리 패럴림픽을 치르면서 유수영은 자신을 응원하는 팬이 늘었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응원의 목소리는 4년 뒤 2028 로스앤젤레스(LA) 패럴림픽을 향한 동력이 된다.

그는 “많이 응원해주신 덕에 복식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면서 “다음에는 진짜 더 잘하고 싶다. 4년 뒤에는 응원해 주신 것을 갑절로 갚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보치아 강선희, 첫 출전서 값진 銅메달

강선희가 2일 열린 보치아 여자개인 동메달 결정전 스포츠등급 BC3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전통적인 효자종목 보치아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첫 메달이 나왔다.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한 강선희(47·한전KPS·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는 2일 열린 대회 보치아 여자개인 동메달 결정전(스포츠등급 BC3)에서 브라질의 이바니 카라두를 4엔드 합산 점수 7-2(2-0 3-0 2-0 0-2)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1977년생인 강선희는 다소 늦은 나이에 보치아에 입문했다. 2000년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 1급을 받은 강선희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다 우연히 보치아를 접했고, 강한 매력에 이끌려 2017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강선희는 빠르게 성장했다. 입문 2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뽑혔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선 정호원과(강원도장애인체육회) 페어(2인조) 종목 금메달을 합작했다.

강선희는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정호원과 함께 페어 종목 금메달을 노린다.

/연합뉴스